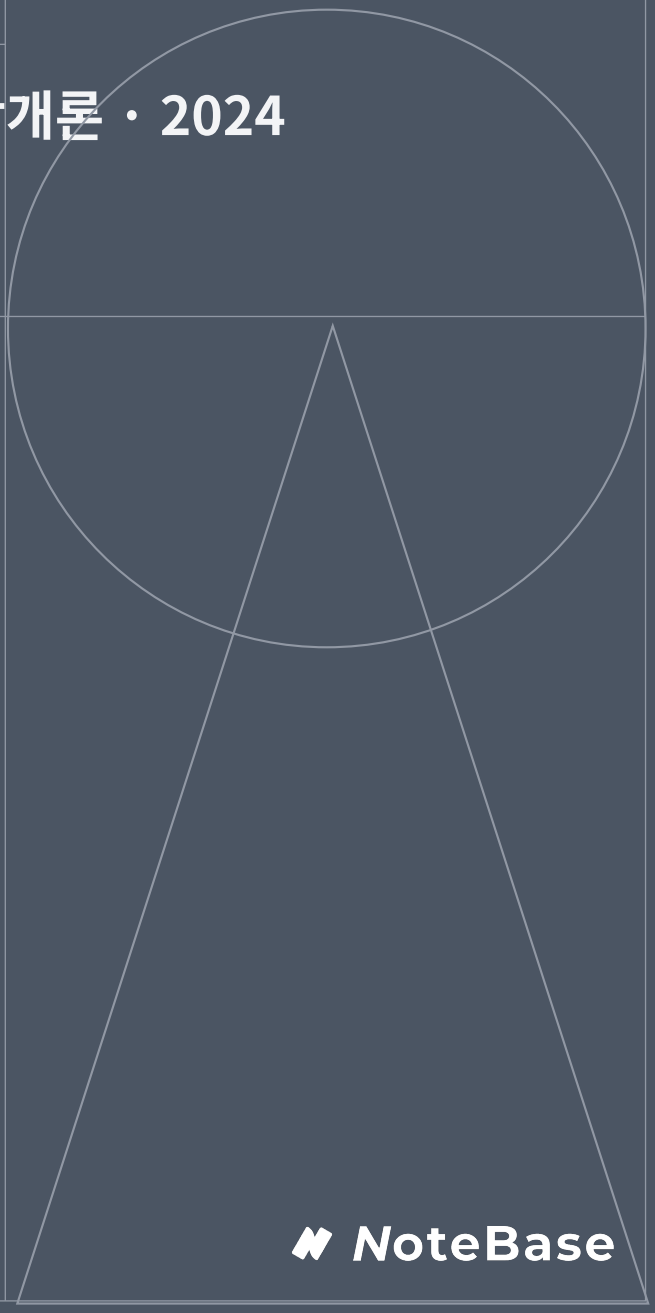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9급 · 경제학개론 · 2024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9급 · 경제학개론 · 2024

공무원/국가직/9급 · 경제학개론 · 2024

문 1. 시장실패의 요인이 아닌 것은?

① 외부성

② 완전경쟁

③ 공공재

④ 비대칭정보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완전경쟁은 **시장실패의 요인이 아니다**. 외부성·공공재·정보 문제 등이 없다는 조건에서 완전경쟁시장의 균형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시장실패는 시장에 맡긴 자원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효율적인 배분이란 다른 사람의 후생을 낮추지 않고서는 누군가의 후생을 더 높일 수 없는 파레토 효율적인 상태를 뜻한다.

① O: 외부성은 경제활동이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대가 없이 편익이나 비용을 주는 현상이다. 이 영향이 **시장가격에 반영되지 않아** 사적 판단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선택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오염 피해를 생산자가 부담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보다 많이 생산할 수 있다.

② X: 완전경쟁은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동질적인 상품을 거래하며 개별 경제주체가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시장구조이다. 외부성·공공재·정보 문제 등이 없다는 조건에서 완전경쟁 균형은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달성하므로 시장실패의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장지배력 때문에 생산량이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보다 줄어드는 독점 등은 시장실패의 요인이 될 수 있다.

③ O: 공공재는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량을 줄이지 않는 비경합성과, 대가를 내지 않은 사람의 이용을 막기 어려운 비배제성을 지닌다. 특히 비배제성 때문에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혜택을 누리려는 **무임승차**가 발생한다. 민간 공급자가 충분한 대가를 받기 어려워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보다 적게 공급될 수 있다.

④ O: 비대칭정보는 거래 당사자 사이에 보유한 정보의 차이가 있는 상태이다. 예를 들어 판매자만 상품의 품질을 잘 알면 구매자는 좋은 상품과 나쁜 상품을 구별하기 어렵다. 이때 좋은 상품에도 낮은 가격만 지불하려 하여 좋은 상품의 판매자가 시장을 떠나는 **역선택**이 발생할 수 있고, 거래와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NoteBase

문 2. 어느 저축 상품의 명목 이자율(수익률)이 6%이고,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은 20%이다. 기대물가상승률이 3%일 때, 피셔방정식으로 계산한 세후 실질 이자율(수익률)은?

① 1.8%

② 3.0%

③ 4.8%

④ 6.0%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이자소득세를 공제한 명목 이자율은 4.8%이다. 피셔방정식의 근사식에 따라 여기서 **기대물가상승률을 차감**하면 세후 실질 이자율은 1.8%가 된다.

계산 과정

세후 명목 이자율: 명목 이자율은 화폐 금액을 기준으로 한 수익률이다. 세금은 원금 전체가 아니라 **이자소득에 부과**되므로, 이자 중 80%가 남는다. 명목 이자율 6%에 세율 20%를 적용하면 세후 명목 이자율은 6% × (1 − 0.20) = 4.8%이다. 이는 원금 대비 세후 이자소득의 비율이다.

세후 실질 이자율: 실질 이자율은 물가 변동을 반영한 구매력 기준의 수익률이다. 이 문항에서는 피셔방정식의 근사식인 $r \approx i(1-t) - \pi^e$를 적용한다. 여기서 r은 세후 실질 이자율, i는 세전 명목 이자율, t는 이자소득세율, π^e는 기대물가상승률이다. **세후 명목 이자율에서 기대물가상승률을 빼므로**, 4.8% − 3% = 1.8%이다. 이는 세금과 예상 물가 상승을 반영한 구매력 증가율이며, ①의 1.8%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3. 어느 기업의 장기평균비용곡선과 장기한계비용곡선이 U자형일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장기평균비용곡선의 최저점에서의 시설규모를 최적시설규모라고 한다.

② 장기한계비용곡선은 단기한계비용곡선들의 포락선(envelope curve)이다.

③ 장기평균비용곡선의 최저점에서 장기한계비용곡선은 장기평균비용곡선과 교차한다.

④ 장기평균비용곡선이 우하향하는 구간에서는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가 존재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단기비용곡선들의 포락선이 되는 것은 **장기평균비용곡선**이다. 생산량마다 시설규모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달성할 수 있는 가장 낮은 단기평균비용을 연결한 곡선이며, 장기한계비용곡선을 뜻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장기에는 모든 생산요소의 투입량과 시설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장기평균비용은 각 생산량을 가장 적은 비용으로 생산할 때의 제품 한 단위당 비용이고, 장기한계비용은 생산량을 한 단위 늘릴 때 추가되는 비용이다.

① O: U자형 장기평균비용곡선의 최저점에서는 제품 한 단위당 비용이 가장 낮다. 이 생산량을 최소비용으로 생산하도록 선택한 시설규모가 **최적시설규모**이다. 특정 생산량에 적합한 시설을 선택하는 것과, 평균비용이 전체적으로 가장 낮아지는 시설규모를 찾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

② X: **장기평균비용곡선은 단기평균비용곡선들의 포락선**이다. 단기평균비용곡선은 시설규모별로 존재하며, 장기에는 각 생산량에서 평균비용이 가장 낮은 시설을 선택한다. 이렇게 선택한 비용을 연결하므로 장기평균비용곡선은 단기평균비용곡선들의 아래쪽 경계를 이룬다. 장기한계비용은 해당 생산량에서 선택된 최적 시설의 단기한계비용과 같지만, 단기한계비용곡선들의 포락선은 아니다.

③ O: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낮으면 평균비용이 하락하고, 높으면 상승**한다. 따라서 U자형 장기평균비용곡선의 최저점에서는 장기한계비용과 장기평균비용이 같아진다. 장기한계비용곡선은 그 지점에서 장기평균비용곡선을 아래에서 위로 가로지른다.

④ O: 규모의 경제는 장기에 생산규모를 확대할 때 **생산량 증가에 따라 평균비용이 낮아지는** 현상이다. 장기평균비용곡선이 우하향한다는 것은 생산량을 늘릴수록 제품 한 단위당 비용이 줄어든다는 뜻이므로, 그 구간에서는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

NoteBase

문 4.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적 소유권 설정은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하는 방안 중 하나이다.

② 경합성은 있으나 배제성이 없는 재화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다.

③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할 때, 생산활동의 사적 한계비용이 사회적 한계비용보다 더 크다.

④ 연근해 어장에서 물고기의 남획으로 인한 어족자원의 고갈은 공유지의 비극의 한 예이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공유자원을 이용하는 사람은 자원 고갈로 다른 이용자에게 주는 피해를 자신의 비용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유지의 비극에서는 **사회적 한계비용이 사적 한계비용보다 크다**.

선지별 해설

① O: 사적 소유권을 명확히 설정하여 소유자가 다른 사람의 이용을 통제할 수 있게 하면, 자원을 보존하여 얻는 미래의 이익도 소유자에게 돌아간다. 이에 따라 소유자는 **자원 고갈에 따른 손실을 자신의 의사결정에 반영**할 유인이 생기므로 과도한 이용을 줄일 수 있다.

② O: 공유자원은 **경합성이 있고 배제성이 없는** 재화이다. 경합성은 한 사람이 이용하면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드는 성질이고, 비배제성은 다른 사람의 이용을 막기 어려운 성질이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이용 가능한 양은 제한되어 있어, 각자가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면 자원이 과도하게 이용될 수 있다.

③ X: 사적 한계비용은 이용자가 한 단위를 추가로 생산·채취할 때 자신이 부담하는 비용이다. 사회적 한계비용에는 이 비용뿐 아니라 자원 감소로 다른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한계외부비용도 포함된다. 따라서 공유지의 비극에서는 **사적 한계비용이 사회적 한계비용보다 작다**. 이용자가 이 외부비용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보다 많이 채취하게 된다.

④ O: 연근해 어장에서 한 어민이 물고기를 잡으면 다른 어민이 잡을 수 있는 물고기가 줄어들지만, 다른 어민의 어장 이용을 막기는 어렵다. 각 어민이 자신의 어획 이익을 추구하면서 **다른 어민의 어획 기회 감소와 어족자원 고갈의 피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남획이 발생한다. 이는 공유자원의 과도한 이용이라는 공유지의 비극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5. 총수요(aggregate demand)를 증가시키기 위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통화정책: 국공채 매각, 재정정책: 소득세 인상

② 통화정책: 통화량 증가, 재정정책: 정부지출 확대

③ 통화정책: 지급준비율 인상, 재정정책: 정부지출 축소

④ 통화정책: 재할인율 인상, 재정정책: 소득세 유지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통화량이 증가하면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낮아져 **투자가 늘고**, 정부지출이 확대되면 **총수요가 직접 증가**한다. 두 정책 모두 총수요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확장정책이다.

구성 요소별 해설

통화정책: 총수요를 늘리려면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확장적 통화정책을 실시한다. 통화량 증가는 일반적으로 이자율을 낮추어 기업의 투자와 이자율에 민감한 소비를 늘린다. 반면 국공채 매각은 중앙은행이 채권을 팔고 그 대금을 흡수하여 시중 통화량을 줄이는 정책이다. 지급준비율 인상은 은행이 예금 중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비율을 높여 대출 여력을 줄이고, 재할인율 인상은 은행이 중앙은행에서 자금을 빌리는 비용을 높인다. 따라서 이 세 수단은 총수요를 줄이는 긴축적 통화정책에 해당하며, 총수요를 늘리려면 각각 국공채 매입, 지급준비율 인하, 재할인율 인하가 적절하다.

재정정책: 총수요는 소비·투자·정부지출·순수출로 구성되므로 **정부지출 확대는 총수요를 직접 늘린다**.
정부지출 축소는 반대로 총수요를 줄인다. 소득세를 인상하면 가계가 세금을 낸 뒤 쓸 수 있는 처분가능소득이 감소하여 소비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총수요를 늘리려는 조세정책은 소득세 인하이며, 소득세 유지는 세율을 바꾸지 않으므로 그 자체로 소비를 늘리는 정책 변화가 아니다.

따라서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조합은 통화량 증가와 정부지출 확대이며, 이는 ②의 연결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6. X재에 대한 시장공급함수는 $Q^S = -4 + P$이다. 이 시장에는 두 소비자 A와 B만 존재하며, 개별수요함수는 각각 $Q_A^D = 12 - P$와 $Q_B^D = 20 - 2P$이다. X재의 균형시장가격은? (단, Q^S, Q_A^D, Q_B^D, P는 각각 시장공급량, 소비자 A의 수요량, 소비자 B의 수요량, 가격이다)

① 6

② 7

③ 8

④ 9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시장수요량은 두 소비자의 수요량을 **같은 가격에서 합산**하여 구한다. 이 시장수요량과 시장공급량이 같아지는 균형시장가격은 9이다.

계산 과정

시장수요량: 시장에는 A와 B만 있으므로, 시장수요량 Q^D는 **같은 가격에서 두 소비자의 수요량을 더한 값**이다. 두 소비자 모두 수요량이 양수인 가격 구간에서는 $Q^D = (12 - P) + (20 - 2P)$, 즉 $Q^D = 32 - 3P$이다.

균형시장가격: 균형에서는 **시장수요량과 시장공급량이 같다**. 따라서 $32 - 3P = -4 + P$를 풀면 $4P = 36$이므로 $P = 9$이다.

계산 확인: 가격이 9일 때 A의 수요량은 $Q_A^D = 12 - 9 = 3$, B의 수요량은 $Q_B^D = 20 - 2 \cdot 9 = 2$이다. 두 수요량이 모두 양수이므로 앞에서 두 수요함수를 합산한 방식이 유효하다. 시장수요량은 $3 + 2 = 5$이고, 시장공급량도 $Q^S = -4 + 9 = 5$로 일치한다.

따라서 균형시장가격 9는 ④의 값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7. X재에 대한 시장수요함수와 시장공급함수는 각각 $Q^D = 85 - 15P$와 $Q^S = 10 + 10P$이다. 시장균형점에서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단,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댓값으로 나타내며, Q^D, Q^S, P는 각각 시장수요량, 시장공급량, 가격이다)

① $\frac{6}{8}$
② $\frac{7}{8}$
③ 1
④ $\frac{9}{8}$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 변화율**의 절댓값이다. 균형가격 3과 균형거래량 40을 적용하면 $\frac{9}{8}$이다.

계산 과정

균형가격: 시장균형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야** 한다. 따라서 $85 - 15P = 10 + 10P$를 풀면 $25P = 75$이므로 균형가격은 P = 3이다.

균형거래량: 균형가격을 수요함수에 대입하면 $Q^D = 85 - 15 \cdot 3 = 40$이다. 공급함수에서도 $Q^S = 10 + 10 \cdot 3 = 40$이므로, 이 가격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수량은 40이다.

탄력성 공식: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가격이 미세하게 변할 때 수요량이 몇 % 변하는지를 나타낸다.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누므로, 절댓값으로 나타낸 점탄력성은 $\varepsilon = \left|\frac{dQ^D}{dP}\right| \cdot \frac{P}{Q^D}$이다. 주어진 수요함수에서 $\frac{dQ^D}{dP} = -15$이며, 이는 가격이 1만큼 오르면 수요량이 15만큼 줄어든다는 뜻이다. 이 기울기를 **변화율의 비율로 바꾸기 위해** 가격을 수요량으로 나눈 값을 곱한다.

균형점의 탄력성: $\varepsilon = 15 \cdot \frac{3}{40} = \frac{9}{8}$이다. 탄력성은 단위가 없는 비율이며, 이 값은 균형점 근처에서 가격이 1% 오르면 수요량이 약 1.125% 줄어든다는 뜻이다. 계산한 값은 ④의 $\frac{9}{8}$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8. 소득 M으로 정상재인 X재와 Y재만을 소비하는 어느 소비자의 효용함수는 $U(x, y) = 2x + 3y$이다. $P_Y = 2P_X$일 때, 이 소비자의 최적 소비 선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x와 y는 각각 X재와 Y재의 소비량이고, P_X와 P_Y는 각각 X재 가격과 Y재 가격이다. $P_X > 0$, $P_Y > 0$, $0 < M < \infty$, $X \geq 0$, $Y \geq 0$이다)

① X재의 한계효용은 $\frac{2}{3}$이다.

② X재와 Y재를 3:2의 비율로 소비한다.

③ M이 증가하면 Y재의 소비가 증가한다.

④ 소득소비곡선(income-consumption curve)은 $y = 0$이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같은 금액을 지출하면 Y재보다 X재에서 더 큰 효용을 얻으므로 **소득 전부를 X재에 지출**한다. 가격이 일정한 상태에서 소득이 늘어도 Y재 소비량은 0이므로 소득소비곡선은 $y = 0$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한계효용은 다른 재화의 소비량을 고정하고 해당 재화를 한 단위 더 소비할 때 늘어나는 효용이다. $U(x, y) = 2x + 3y$에서 X재를 한 단위 더 소비하면 효용이 2만큼 증가하므로 **X재의 한계효용은 2**이다. $\frac{2}{3}$은 X재와 Y재의 한계효용의 비율로, 같은 효용을 유지하면서 X재 한 단위를 더 얻기 위해 포기할 수 있는 Y재의 양을 나타낸다.

② X: 이 효용함수는 두 재화가 완전대체재인 경우이다. $P_Y = 2P_X$이므로 Y재 한 단위를 포기하면 같은 비용으로 X재 두 단위를 구입할 수 있다. 이때 효용은 3만큼 줄고 4만큼 늘어나므로 X재로 바꾸는 것이 유리하다. 따라서 두 재화를 3:2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X재만 소비하는 모서리해**를 선택한다. 한계효용이 양수이므로 소득을 모두 지출하며, 최적 소비량은 $x = \frac{M}{P_X}$, y = 0이다.

③ X: 가격이 일정하면 소득이 증가해도 같은 비용으로 얻는 효용은 여전히 X재가 더 크다. 따라서 **Y재 소비량은 계속 0**이고, 추가 소득은 모두 X재 구입에 사용한다. 소득 증가로 늘어나는 것은 Y재가 아니라 X재의 소비량이다.

④ O: 소득소비곡선은 **두 재화의 가격을 고정하고 소득만 변화**시킬 때의 최적 소비점들을 연결한 것이다. 이 소비자는 모든 양의 소득에서 $x = \frac{M}{P_X}$, y = 0을 선택한다. 따라서 소득소비곡선은 원점을 제외한 양의 x축 위에 놓이며, 그 식은 $y = 0$이다.

NoteBase

문 9. A, B, C 세 사람만 존재하는 경제에서 공공재로부터 개별 소비자 i가 얻는 한계편익(MB_i)은 각각 $MB_A = 4 - Q$, $MB_B = 5 - Q$, $MB_C = 6 - Q$이다. 공공재 생산의 한계비용이 9로 일정할 때, 사회적 최적 생산량은? (단, $i = A, B, C$이고, Q는 수량이다)

① 2

② 3

③ 4

④ 5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공공재는 같은 생산량에서 세 사람이 얻는 **한계편익을 합산**하여 한계비용과 비교한다. 그 합이 한계비용 9와 같아지는 사회적 최적 생산량은 Q = 2이다.

계산 과정

공공재는 한 사람이 소비해도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량이 줄어들지 않으므로, A·B·C가 모두 같은 수량 Q를 소비한다. 한계편익은 공공재를 한 단위 더 공급할 때 얻는 추가 편익이고, 한계비용은 그때 드는 추가 비용이다.

사회적 한계편익(SMB)은 **같은 Q에서 개인별 한계편익을 더한 값**이다. 따라서
$SMB = (4 - Q) + (5 - Q) + (6 - Q)$, 즉 $SMB = 15 - 3Q$이다.

사회적 최적 생산량에서는 사회적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같아진다. 주어진 한계비용 9를 대입하면 $15 - 3Q = 9$이고, 이를 풀면 $3Q = 6$이므로 Q = 2이다. 이보다 적게 공급하면 추가 편익이 추가 비용보다 크고, 더 많이 공급하면 추가 편익이 추가 비용보다 작아진다.

Q = 2에서 A·B·C의 한계편익은 각각 2, 3, 4이다. 이는 공공재 한 단위를 더 공급할 때 각자가 얻는 추가 편익이며, 합계 2 + 3 + 4 = 9가 한계비용과 일치한다. 따라서 사회적 최적 생산량은 2단위로, ①의 2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0. 환율결정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자율평가설은 국가 간 자유로운 자본이동을 전제로 한다.

② 구매력평가설은 금융거래만 고려하고 경상거래를 배제한다.

③ 이자율평가설에 따르면 환율은 양국 간 이자율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

④ 무역장벽과 비교역재의 존재는 구매력평가설의 현실설명력을 낮춘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구매력평가설은 **재화의 국제거래와 양국의 물가 수준**을 바탕으로 환율을 설명한다. '금융거래만 고려하고 경상거래를 배제한다'는 설명은 잘못이며, 금융자산의 수익률 비교를 중심으로 하는 이론은 이자율평가설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이자율평가설은 국내외 금융자산의 수익률을 비교하여 환율을 설명한다.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수익률 차이가 조정되려면, **국가 간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자본이동이 제한되면 유리한 투자기회가 있어도 자금을 옮기기 어려워 이 관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② X: 구매력평가설은 금융거래만을 고려하는 이론이 아니라 **재화의 거래와 물가의 관계**에 기초한 이론이다. 같은 재화를 공통 통화로 표시한 가격이 국가 간에 같아지는 경향을 바탕으로, 양국 통화의 구매력이 같아지도록 환율이 결정된다고 본다. 따라서 상품 수출입과 같은 경상거래를 배제한다는 부분이 잘못이다. 금융자산의 수익률과 자본이동에 주목하는 것은 이자율평가설이다.

③ O: 해외 금융자산에 투자하면 이자를 받을 뿐 아니라, 투자금을 자국 통화로 되돌릴 때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도 생긴다. 이자율평가설은 이러한 환율변동을 반영한 국내외 자산의 기대수익률이 같아지는 관계를 설명한다. 따라서 **미래 예상환율 등이 주어지면** 양국 간 이자율 차이는 현재 환율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이자율 차이만으로 미래 예상환율과 무관하게 환율 수준이 정해진다는 뜻은 아니다.

④ O: 구매력평가설이 현실에서 잘 성립하려면 국가 간 가격 차이를 재화 거래로 줄일 수 있어야 한다. 관세 등 무역장벽은 거래비용을 높여 이러한 가격 조정을 방해한다. 비교역재는 국경을 넘어 거래하기 어려워 국가 간 가격 차이가 있어도 수출입을 통해 해소하기 어렵다. 두 요인 모두 **재화 거래를 통한 가격 차이의 해소**를 어렵게 하므로 구매력평가설의 현실설명력을 낮춘다.

NoteBase

문 11. 고정환율제도하의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IS-LM-BP곡선이 균형상태에 있다. 정부지출 증가 시 최종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자본이동은 완전히 자유롭고, IS곡선은 우하향하고, LM곡선은 우상향하며, 환율예상은 정태적이다)

① 환율은 불변이고, 소득수준은 증가한다.

② 환율은 상승하고, 소득수준은 증가한다.

③ 환율은 불변이고, 소득수준은 불변이다.

④ 환율은 하락하고, 소득수준은 불변이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정부지출 증가로 자본유입과 자국통화의 절상 압력이 생기면, 중앙은행은 외화를 매입하고 자국통화를 공급해 **고정환율을 유지**한다. 이때 통화량도 늘어나므로 최종적으로 **소득수준은 증가**한다.

핵심 풀이

균형 조건: 소규모 개방경제는 세계이자율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인다.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롭고 환율예상이 정태적이므로, 최종균형에서 국내이자율은 세계이자율과 같아야 한다. 따라서 소득과 이자율을 두 축으로 하는 BP곡선은 세계이자율 수준에서 수평이다.

정부지출 증가: 재화에 대한 총수요가 늘어 IS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통화량이 아직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소득 증가에 따른 화폐수요 증가로 국내이자율에 상승 압력이 생긴다. 국내이자율이 세계이자율보다 높아지려 하면 외국자본이 유입되어 자국통화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자국통화의 절상 압력**이 발생한다.

환율 방어: 고정환율제도에서는 중앙은행이 외화를 매입하고 그 대가로 자국통화를 공급하여 절상 압력을 상쇄한다. 그 결과 **통화량이 증가하여 LM곡선도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절상 압력이 생겼다는 사실을 최종균형에서 환율이 실제로 하락한다는 뜻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중앙은행의 개입으로 환율은 기존 수준에 유지되므로 환율 상승이나 하락을 제시한 설명은 맞지 않는다.

최종균형: 확대된 IS곡선과 오른쪽으로 이동한 LM곡선이 수평인 BP곡선 위에서 만난다. 국내이자율은 세계이자율 수준으로 돌아가지만, 정부지출 증가와 통화량 증가가 뒷받침되어 **소득수준은 처음보다 높아진다**. 따라서 최종균형은 '환율 불변·소득수준 증가'이며, 소득수준까지 불변인 경우와 구별된다.

NoteBase

문 12. 어느 경제의 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인구, 실업자가 다음과 같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생산가능인구: 2,000만 명
◯ 경제활동인구: 1,600만 명
◯ 실업자: 80만 명

① 실업률은 5%이다.
② 고용률은 95%이다.
③ 경제활동참가율은 80%이다.
④ 비경제활동인구는 400만 명이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고용률은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이다. 취업자는 1,600 − 80 = 1,520만 명이므로 고용률은 76%이며, 95%는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선지별 해설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의 합이다. 따라서 취업자는 1,600 − 80 = 1,520만 명이다. 아래 비율 계산에서 인구 수의 단위는 모두 만 명이다.

① O: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이다. 따라서 실업률은 $\frac{80}{1,600} \times 100 = 5\%$이다.

② X: 고용률의 분모는 **생산가능인구**이다. 따라서 고용률은 $\frac{1,520}{2,000} \times 100 = 76\%$로 고쳐야 한다. 선지의 95%는 취업자를 경제활동인구로 나눈 $\frac{1,520}{1,600} \times 100 = 95\%$로, 실업률 5%를 100%에서 뺀 값이다.

③ O: 경제활동참가율은 **생산가능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다. 따라서 경제활동참가율은 $\frac{1,600}{2,000} \times 100 = 80\%$이다.

④ O: 비경제활동인구는 생산가능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지 않는 인구**이다. 따라서 2,000 − 1,600 = 400만 명이다. 실업자는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므로 비경제활동인구를 구할 때 별도로 더하지 않는다.

NoteBase

문 13. 정부가 정부지출 수준의 변화 없이 조세징수액을 줄이고, 그 대신 동일액의 국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충당하였다. 이에 대한 리카디언 등가정리(Ricardian equivalence theorem)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초기에 경제는 장기 균형상태에 있다)

① 조세삭감으로 소비자는 소비를 증가시키지 않는다.

② 민간저축과 정부저축이 증가하여 총저축은 증가한다.

③ 재정적자는 단기에 국민소득과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④ 재정적자는 장기에 국민소득과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감세액만큼 **민간저축은 증가하지만 정부저축은 감소**하므로, 두 저축을 합한 **총저축은 변하지 않는다**. 소비자는 국채 상환을 위한 미래의 증세에 대비하여 감세로 늘어난 가처분소득을 저축한다.

선지별 해설

리카디언 등가정리는 정부지출의 경로가 같을 때 조세와 국채 중 무엇으로 재원을 조달하는지가 소비와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소비자가 미래의 조세 부담을 예상하고 차입제약 없이 소비를 조정할 수 있다는 등의 성립 조건을 전제로 한다.

① O: 리카디언 등가정리에서는 소비자가 국채 상환에 필요한 미래의 조세 부담까지 고려하여 소비를 결정한다. 현재 감세로 가처분소득이 늘어도 그만큼 미래의 세금에 대비해 저축하므로, **소비는 증가하지 않는다**.

② X: 민간저축은 가처분소득에서 소비를 뺀 것이므로, 소비가 일정하면 감세액만큼 증가한다. 반면 정부저축은 조세수입에서 정부지출을 뺀 것이므로, 정부지출이 일정한 상태에서 세수가 줄면 감세액만큼 감소한다. 따라서 **민간저축 증가와 정부저축 감소가 상쇄**되어 총저축은 변하지 않는다. '정부저축이 증가'한다는 부분은 '정부저축이 감소'로, '총저축은 증가'한다는 부분은 '총저축은 불변'으로 고쳐야 한다.

③ O: 이 문제의 재정적자는 정부지출 확대가 아니라 감세를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면서 발생한다. 감세에도 소비가 늘지 않고 정부지출도 그대로이므로 **총수요가 증가하지 않는다**. 따라서 초기에 장기 균형상태에 있던 경제의 국민소득과 물가는 단기에도 변하지 않는다.

④ O: 민간저축 증가가 정부저축 감소를 상쇄하여 총저축이 일정하므로, 이 재원 조달 방식의 변경은 투자와 자본축적을 바꾸지 않는다. 따라서 **장기 생산능력과 국민소득이 변하지 않으며**, 총수요 변화도 없으므로 물가 역시 변하지 않는다.

NoteBase

문 14. (가), (나)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경기변동은, 화폐경기변동이론(monetary business cycle theory)에 따르면 주로 (가)의 변동에 기인하며, 실물경기 변동이론(real business cycle theory)에 따르면 주로 (나)에 따른 실물적 요인의 변화에 기인한다.

① (가): 예상한 통화량, (나): 기술적 충격
② (가): 예상한 통화량, (나): 임금의 경직성
③ (가): 예상치 못한 통화량, (나): 기술적 충격
④ (가): 예상치 못한 통화량, (나): 임금의 경직성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화폐경기변동이론에서는 **예상치 못한 통화량 변화**로 생긴 물가 변화를 경제주체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서 생산이 변동한다. 실물경기변동이론에서는 **기술적 충격**이 생산성을 바꾸어 생산과 고용의 변동을 일으킨다.

빈칸별 해설

(가) 예상치 못한 통화량: 이 문항의 화폐경기변동이론은 불완전한 정보 아래에서 예상하지 못한 통화량 변화가 실물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설명한다. 예를 들어 통화량 증가로 전반적인 물가가 올랐는데 생산자가 이를 자기 상품의 상대가격 상승으로 오인하면 생산을 늘릴 수 있다. 반면 통화량 변화가 미리 예상되면 물가에 대한 예상도 조정되므로 이러한 오인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경기변동을 일으키는 핵심은 통화량 변화 중 **미리 예상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다.

(나) 기술적 충격: 실물경기변동이론은 기술 변화처럼 경제의 생산능력을 바꾸는 실물적 충격을 경기변동의 주요 원인으로 본다. 기술이 개선되면 같은 노동과 자본으로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고, 노동과 투자의 유인도 달라져 생산·고용·투자가 변동한다. 이 이론은 가격과 임금이 신축적으로 조정되는 상황에서 경기변동을 설명하므로, 임금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임금의 경직성을 주요 원인으로 삼지 않는다**.

(가)의 '예상치 못한 통화량'과 (나)의 '기술적 충격'을 연결한 조합은 ③이다.

NoteBase

문 15. 대부자금 시장의 수요는 투자로 구성되고, 공급은 민간저축과 정부저축(조세수입 – 정부지출)의 합으로 구성된다. 대부자금 시장에서 재정적자를 통해 정부지출을 증가시키는 경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대부자금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은 각각 실질이자율에 대해 우하향, 우상향하고, 초기에 정부는 균형재정상태에 있다)

① 대부자금 수요곡선은 이동하지 않는다.

② 대부자금 공급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한다.

③ 실질이자율은 하락하고, 대부자금 거래량은 감소한다.

④ 정부차입으로 인한 민간 투자의 감소 현상을 구축효과라고 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재정적자로 정부저축이 줄면 대부자금 공급이 감소하므로 실질이자율은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상승한다**. 높아진 이자율 때문에 민간 투자가 줄어 대부자금 거래량은 감소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이 문제에서 대부자금 수요는 **민간 투자로만 구성**된다. 정부차입은 정부저축의 감소를 통해 공급 쪽에 반영되므로 대부자금 수요곡선 자체는 이동하지 않는다. 다만 실질이자율이 상승하면 기존 수요곡선을 따라 투자에 필요한 대부자금 수요량이 줄어든다.

② O: 대부자금 공급은 민간저축과 정부저축의 합이다. 처음의 균형재정에서는 조세수입과 정부지출이 같아 정부저축이 0이다. 재정적자가 발생하면 정부지출이 조세수입을 초과하여 **정부저축이 음수**가 된다. 다른 조건이 같을 때 각 실질이자율에서 대부자금 공급량이 줄어 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③ X: 수요곡선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면, 기존 이자율에서는 대부자금의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실질이자율이 상승하고,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을 따라 새로운 균형 거래량은 감소한다. 따라서 '실질이자율은 하락하고'를 **'실질이자율은 상승하고'**로 고쳐야 하며, 거래량이 감소한다는 부분은 맞다.

④ O: 정부가 재정적자를 차입으로 충당하면 국민저축이 줄고 실질이자율이 상승한다. 이자율은 기업이 투자자금을 빌리는 비용이므로, 이자율 상승으로 수익성이 낮아진 투자사업은 실행되지 않는다. 이처럼 정부차입이 **민간 투자를 감소시키는 현상**을 구축효과라고 한다.

NoteBase

문 16. $Q(L, K) = L^{\alpha}K^{\beta}$**인 콥-더글라스(Cobb-Douglas) 생산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Q**,** L**,** K**는 각각 생산량, 노동량, 자본량을 나타내며,** $\alpha > 0$**,** $\beta > 0$**이다)**

① 노동과 자본 사이의 대체탄력성은 $\frac{\alpha}{\beta}$이다.

② $\alpha + \beta < 1$일 때, 생산함수는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을 보인다.

③ $\alpha + \beta = 1$이고 두 생산요소의 가격이 양(+)으로 일정할 때, 확장경로(expansion path)는 수직선이다.

④ 생산의 노동탄력성 (생산량의 변화율노동량의 변화율)과 생산의 자본탄력성 (생산량의 변화율자본량의 변화율)은 각각 α와 β이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다른 생산요소의 투입량을 고정할 때, 콥-더글라스 생산함수의 **각 생산요소 지수가 그 요소의 생산탄력성**이다. 따라서 노동의 생산탄력성은 α, 자본의 생산탄력성은 β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이 모두 양수인 경우를 기준으로 생산함수의 성질을 살펴본다. 한계생산은 다른 요소를 고정했을 때 해당 요소의 투입량 변화에 대한 생산량의 순간적인 변화율이다.

① X: 대체탄력성은 같은 생산량을 유지하면서 한계기술대체율이 변할 때 자본·노동 비율이 얼마나 민감하게 변하는지를 나타낸다. 노동과 자본의 한계생산을 각각 MP_L, MP_K라 하면, 한계기술대체율은 $R = \frac{MP_L}{MP_K} = \frac{\alpha K}{\beta L}$이다. 두 지수가 일정하므로 자본·노동 비율과 한계기술대체율의 변화율이 같아 **대체탄력성은 1**이다. $\frac{\alpha}{\beta}$는 위 관계의 비례계수이며 대체탄력성이 아니다.

② X: 규모수익은 모든 생산요소를 같은 비율로 늘렸을 때 생산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뜻한다. 노동과 자본을 모두 t배로 늘리면 $Q(tL, tK) = t^{\alpha+\beta}Q(L, K)$이다. $t > 1$이고 $\alpha + \beta < 1$이면 생산량은 t배보다 적게 늘어나므로 **규모에 대한 수익체감**을 보인다. 수익불변은 $\alpha + \beta = 1$일 때이고, 수익체증은 $\alpha + \beta > 1$일 때이다.

③ X: 확장경로는 생산요소 가격이 일정할 때 생산량별 비용최소화 투입 조합을 연결한 선이다. 임금을 $w > 0$, 자본의 단위당 가격을 $r > 0$라 하면, 비용최소화 조건은 $\frac{MP_L}{MP_K} = \frac{w}{r}$이다. 여기에 콥-더글라스 생산함수의 한계기술대체율을 대입하면 $K = \frac{\beta w}{\alpha r}L$을 얻는다. 따라서 가로축을 노동량, 세로축을 자본량으로 놓으면 확장경로는 **원점을 지나는 우상향 직선**이다. 생산량이 늘 때 노동과 자본을 일정한 비율로 함께 늘리므로 노동량이 고정된 수직선이 아니다. 이 성질은 $\alpha + \beta = 1$인 경우에도 성립한다.

④ O: 한 생산요소의 생산탄력성은 **다른 생산요소를 고정한 상태**에서 그 요소의 투입량 변화율에 대한 생산량 변화율의 비율이다. 노동의 한계생산은 $MP_L = \alpha L^{\alpha-1}K^{\beta}$이므로 노동의 생산탄력성은 $\varepsilon_L = MP_L\frac{L}{Q} = \alpha$이다. 자본의 한계생산은 $MP_K = \beta L^{\alpha}K^{\beta-1}$이므로 자본의 생산탄력성은 $\varepsilon_K = MP_K\frac{K}{Q} = \beta$이다. 즉, 각 투입요소의 지수가 해당 요소의 생산탄력성을 나타낸다.

NoteBase

문 17. 동질적 재화를 생산하는 기업 A와 B는 꾸르노(Cournot) 경쟁을 하고 있다. 이 복점시장의 역수요함수는 $P = 90 - Q$이고, 두 기업의 비용함수는 각각 $C_A(q_A) = 10q_A$와 $C_B(q_B) = 20q_B$이다. 꾸르노 모형의 균형에서 기업 A와 B의 생산량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단, P는 시장가격, Q는 $Q = q_A + q_B$인 시장생산량이고, q_A와 q_B는 각각 기업 A와 B의 생산량이다)

① q_A: 20, q_B: 15

② q_A: 30, q_B: 20

③ q_A: 35, q_B: 25

④ q_A: 40, q_B: 3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꾸르노 균형에서는 **상대 기업의 생산량을 고정**한 상태에서 각 기업의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같아야 한다. 두 기업의 조건을 동시에 풀면 기업 A의 생산량은 $q_A = 30$, 기업 B의 생산량은 $q_B = 20$이다.

계산 과정

꾸르노 모형에서 각 기업은 상대 기업의 생산량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자신의 이윤을 최대화한다. 시장생산량은 $Q = q_A + q_B$이므로 가격은 $P = 90 - q_A - q_B$이다. 비용함수에서 생산량이 한 단위 늘 때 비용은 A가 10, B가 20씩 증가하므로 한계비용은 각각 $MC_A = 10$, $MC_B = 20$이다.

기업 A: B의 생산량을 고정하면 총수입은 $TR_A = (90 - q_A - q_B)q_A$이다. 이를 자신의 생산량으로 미분한 한계수입은 $MR_A = 90 - 2q_A - q_B$이다.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을 같게** 놓으면 $90 - 2q_A - q_B = 10$이므로 $2q_A + q_B = 80$을 얻는다. 이는 B의 생산량에 대응하는 A의 최적 생산량 조건이다.

기업 B: A의 생산량을 고정하면 총수입은 $TR_B = (90 - q_A - q_B)q_B$이고 한계수입은 $MR_B = 90 - q_A - 2q_B$이다. 한계비용 20과 같게 놓으면 $90 - q_A - 2q_B = 20$이므로 $q_A + 2q_B = 70$을 얻는다. 이는 A의 생산량에 대응하는 B의 최적 생산량 조건이다.

균형 생산량: **두 기업의 최적 생산량 조건이 동시에 성립**해야 한다. A의 조건에서 $q_B = 80 - 2q_A$이므로 이를 B의 조건에 대입하면 $q_A + 2(80 - 2q_A) = 70$이다. 정리하면 $3q_A = 90$에서 $q_A = 30$이고, $q_B = 80 - 2 \cdot 30 = 20$이다.

따라서 기업 A의 생산량 30과 기업 B의 생산량 20을 연결한 ②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8. 기업 A와 B는 자신의 생산량 결정에 있어서 대량 생산(H)과 소량 생산(L)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두 기업이 동시에 생산량을 한 번만 선택하는 게임의 보수행렬이 다음과 같을 때, 이 게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보수행렬의 괄호 안 첫 번째 숫자는 기업 A의 보수이고, 두 번째 숫자는 기업 B의 보수를 나타낸다)

		기업 B	
		H	L
기업 A	H	$(5, -1)$	$(a, 0)$
	L	$(6, 4)$	$(10, 0)$

① 기업 B의 우월전략은 존재하지 않는다.

② a < 10일 때, 기업 A의 우월전략은 L이다.

③ a = 10일 때, 순수전략 내쉬균형은 2개 존재한다.

④ a > 10일 때, 순수전략 내쉬균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a > 10이어도 두 기업이 서로 최적반응을 하는 **순수전략 내쉬균형이 2개 존재한다**. 기업 A와 B의 전략을 차례로 쓰면 (L, H)와 (H, L)이며, 어느 쪽에서도 한 기업만 전략을 바꾸어 보수를 높일 수 없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보수행렬에서 행은 기업 A의 전략, 열은 기업 B의 전략이며, 각 칸의 첫 번째 보수는 A, 두 번째 보수는 B의 것이다. 우월전략은 상대의 선택과 관계없이 다른 전략보다 높은 보수를 주는 전략이다. 순수전략 내쉬균형은 각 기업이 H 또는 L 하나를 선택하고, 상대의 전략이 주어졌을 때 자신만 전략을 바꾸어 보수를 높일 수 없는 상태이다. 아래의 전략 조합은 (A의 전략, B의 전략) 순서로 표시한다.

① O: A가 H를 선택하면 B는 H에서 −1, L에서 0을 얻으므로 L을 선택한다. A가 L을 선택하면 B는 H에서 4, L에서 0을 얻으므로 H를 선택한다. 이처럼 **상대의 전략에 따라 최적반응이 달라지므로** B에게는 우월전략이 없다.

② O: B가 H를 선택하면 A는 H에서 5, L에서 6을 얻어 L을 선호한다. B가 L을 선택하면 A는 H에서 a, L에서 10을 얻으므로 a < 10일 때 L을 선호한다. 따라서 이 조건에서는 **B의 선택과 관계없이 L의 보수가 더 높다**.

③ O: B의 최적반응을 만족하는 조합은 (L, H)와 (H, L)뿐이다. (L, H)에서는 A가 5보다 높은 6을, B가 0보다 높은 4를 얻으므로 둘 다 전략을 바꿀 유인이 없다. a = 10일 때 (H, L)에서는 A가 H와 L 어느 것을 택해도 보수가 10이고, B는 H의 보수 −1보다 L의 보수 0이 높다. 내쉬균형에서는 전략을 바꾸어 **보수가 같아지는 것은 허용된다**. 따라서 이 두 조합이 모두 순수전략 내쉬균형이다.

④ X: a > 10일 때에도 (L, H)에서 A의 보수는 6으로 전략을 H로 바꿀 때의 5보다 높고, B의 보수는 4로 L로 바꿀 때의 0보다 높다. (H, L)에서는 A의 보수가 a로 L로 바꿀 때의 10보다 높고, B의 보수는 0으로 H로 바꿀 때의 −1보다 높다. 두 조합 모두 서로의 최적반응이므로 '존재하지 않는다'를 **'(L, H)와 (H, L)의 2개가 존재한다'**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문 19. 일인당 생산함수가 $y = k^{\frac{1}{2}}$인 솔로우(Solow) 성장모형에서, 저축률과 감가상각률은 각각 40%와 20%이다. 이 경제의 균제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y와 k는 각각 일인당 생산량과 일인당 자본량이며, 인구증가와 기술진보는 없다)

① 일인당 자본량은 4이다.

② 황금률이 달성되지 않는다.

③ 자본의 한계생산성은 0.2이다.

④ 일인당 소비는 1.2이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균제상태의 일인당 자본량은 4이며, 자본의 한계생산성은 $f'(4) = \frac{1}{2\sqrt{4}} = 0.25$이다. 선지의 **0.2는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아니라 감가상각률**이다.

선지별 해설

저축률을 s, 감가상각률을 δ라 하면 일인당 투자는 $sf(k)$, 일인당 감가상각은 δk이다. 인구증가와 기술진보가 없으므로 균제상태에서는 **투자와 감가상각이 같아** 일인당 자본량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① O: 균제상태 조건은 $0.4\sqrt{k} = 0.2k$이다. 양의 자본량에 대해 양변을 $0.2\sqrt{k}$로 나누면 $\sqrt{k} = 2$이므로 일인당 자본량은 k = 4이다. 이를 생산함수에 대입한 일인당 생산량은 $y = \sqrt{4} = 2$이다.

② O: 황금률은 **균제상태의 일인당 소비를 최대화하는 자본량**을 뜻한다. 균제상태 소비는 $c = f(k) - \delta k$이므로, 인구증가와 기술진보가 없을 때 황금률 조건은 $f'(k) = \delta$이다. 이 경제의 균제상태에서는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0.25로 감가상각률 0.2보다 크다. 따라서 황금률이 달성되지 않으며, 자본량을 더 늘리면 균제상태 소비를 높일 수 있다.

③ X: 자본의 한계생산성은 **자본을 한 단위 추가할 때 증가하는 생산량**으로, 생산함수를 자본량으로 미분하여 구한다. $f'(k) = \frac{1}{2\sqrt{k}}$에 균제상태 자본량 k = 4를 대입하면 $f'(4) = \frac{1}{4} = 0.25$이다. 따라서 '0.2'를 '0.25'로 고쳐야 한다. 0.2는 주어진 감가상각률이다.

④ O: 생산량 중 저축하지 않은 부분이 소비이므로 **소비율은 60%**이다. 일인당 생산량이 2이므로 일인당 소비는 $c = (1 - s)y$에 따라 $(1 - 0.4) \times 2 = 1.2$이다. 나머지 0.8은 투자되며, 균제상태에서 감가상각 $0.2 \times 4 = 0.8$을 보충한다.

NoteBase

문 20. 어느 경제의 본원통화가 600억 원, (법정지급준비금/요구불예금) 비율이 0.1, (현금/요구불예금) 비율이 0.5인 경우 통화승수와 통화량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단, 민간은 현금 보유 외 나머지는 모두 요구불예금으로 저축하고, 은행은 법정지급준비금을 제외한 모든 예금을 대출한다)

① 통화승수: 0.5, 통화량: 300억 원

② 통화승수: 1.5, 통화량: 900억 원

③ 통화승수: 2.5, 통화량: 1,500억 원

④ 통화승수: 3.5, 통화량: 2,100억 원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통화승수는 **현금과 요구불예금을 합친 통화량이 본원통화의 몇 배인지**를 나타낸다. 주어진 비율을 적용하면 $\frac{1+0.5}{0.5+0.1}=2.5$이므로 통화량은 2.5 × 600 = 1,500억 원이다.

계산 과정

현금을 C, 요구불예금을 D, 은행의 지급준비금을 R, 본원통화를 H, 통화량을 M이라 하자. 민간은 현금 이외의 돈을 모두 요구불예금으로 보유하므로 $M=C+D$이다. 본원통화는 민간 보유 현금과 은행 지급준비금의 합이므로 $H=C+R$이다.

현금은 요구불예금의 0.5배이므로 $C=0.5D$이다. 은행은 법정지급준비금 외의 예금을 모두 대출하므로 **초과지급준비금이 없고**, $R=0.1D$이다. 따라서 $M=1.5D$, $H=0.6D$가 된다. 요구불예금 1원에 대응하는 통화량은 1.5원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본원통화는 0.6원이라는 뜻이다.

통화승수 m은 **통화량을 본원통화로 나눈 비율**이다. 따라서 $m=\frac{M}{H}=\frac{1.5D}{0.6D}$이며, $m=\frac{1+0.5}{0.5+0.1}=2.5$이다. 분자의 1은 요구불예금을, 0.5는 현금 보유를 반영하고, 분모는 현금과 지급준비금에 필요한 본원통화를 반영한다.

통화량은 본원통화에 통화승수를 곱한 값이므로 $M=mH$이다. 본원통화 600억 원에 2.5를 곱하면 2.5 × 600 = 1,500억 원이다. 따라서 통화승수 2.5와 통화량 1,500억 원을 연결한 ③에 해당한다.

NoteBase